

news

인도 IT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



협회는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인도 뉴델리 Pragati Maidan 전시장에서 '인도 IT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India IT Business Roundtable, 이하 인도사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인도사업은 한·인도 IT기업 간의 비즈니스 상담 및 협력모델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인도 진출 전략 간담회, 컨버전스 인디아 전시회 부스 운영, 비즈니스 상담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우수한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최근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사업은 인도 최대의 정보통신 전시회 참가와 비즈니스 상담회를 동시에 운영하여 참가기업의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하였다. 본격적인 상담일정에 앞서 20일 오전에 열린 '인도시장 진출전략 간담회'에는 인도공과대학(IIT)

의 Dr. Momaya 교수가 '인도 IT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소개하였고, 이어서 LG전자 인도법인의 강호섭 부장과 한국수출입은행 멜리시무소의 김영선 부장이 인도시장의 마케팅전략과 수출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여 국내 참가기업들에게 인도시장에 대한 시전지식을 제공하였다.

이번 인도 사업에는 트라이비전디스플레이(대표 이현철), 스콤정보통신(대표 김찬우), 알에프원도우(대표 이성자), 셀로코(대표 유영욱), 베스트디지털(대표 최병진), 인베스트클럽(대표 이성모), 리노(대표 정준환), 대한특수금속(대표 안준범), 주홍정보통신(대표 신영간), FO&T 등 10개의 국내 우수 IT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 측에서 70여 개 기업이 참석하였다. 또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된 컨버전스 인디아 전시회에는 4만여 명의 전문バイ어들이 전시장을 방문하여 국내 참가사들과 활발한 상담을 펼쳤다.

또한 협회는 행사기간 중 NASSCOM(인도소프트웨어 서비스협회)의 Sangeeta Gupta 부회장을 방문해 미팅을 갖고 항후 양단체 회원사 간에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를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기업은행과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지원' 업무협약 체결



협회는 지난 3월 3일 기업은행(행장 강권석)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기업은행 층에 추천하게 되며, 기업은행은 추천된 혁신형 중소기업에 자금,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협회와 기업은행은 추천된 기업에 대해 신용대출, 기술신용보증기금 연계 보증대출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출금리 감면 등 우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은 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이재영),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원장 김동철),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송혜자) 등 4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체결했다.

〈한국벤처산업발전사 I · II〉 발간



협회는 우리 벤처산업 10년의 역사적 궤적을 담은 〈한국벤처산업발전사 I · II〉(아르케 키)를 펴냈다. 모두 8개의 장으로 구성된 I권의 주요내용은 ▲한국의 벤처세대 ▲벤처군단 등장 ▲벤처붐 조성과 벤처 도입기 ▲시련과 벤처인프라 구축기 ▲위기는 기회였다 ▲벤처도약기와 확산되는 벤처붐 ▲21세기 벤처대국을 향해 ▲벤처에 대한 5가지 이해와 진실 등이다. I권에 실린 시기에는 아직도 기억할 만한 많은 상황이 담겨있다. 특히 협회가 대학생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전국 대학을 돌며 진행한 '벤처 창업 순회 로드쇼', 자식사마을운동 차원에서 펼친 '실험실 1창업운동', '10만 월마스터 양성운동' 등이 손에 꼽힌다.

모두 7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II권의 주요내용은 ▲벤처산업의 역사(I권 요약) ▲한국경제발전의 핵심축으로 성장한 벤처산업 ▲벤처 육성정책과 관련 제도의 변화 ▲벤처금융과 회수시장의 형성과 발전 ▲벤처기업의 윤리경영과 나눔문화 ▲벤처산업의 중심에 선 협회 ▲벤처산업 관련 단체 현황 등이다.(정가 : 각 3만 5천원)

2006년도 제1차 벤처윤리위원회 개최



2006년도 제1차 벤처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2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최근 추진해왔던 벤처윤리 경영확산사업 내용과 벤처기업경영재기지원제도 운영 현황이 보고되었다. 윤리위원들은 2006년 벤처윤리경영확산 사업계획과 윤리위원 재구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협회는 책자와 동영상 CD로 구성된 벤처윤리경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했다. 교육자료에는 벤처기업 임직원들의 윤리 경영 도입 및 실천을 위한 교육 내용이 담겨있다.

조현정 회장, 윤경포럼에서 〈우리의 다짐〉 선언



협회 조현정 회장은 지난 3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06년 윤경포럼 세미나-CEO 서약식'에 참가해 '서약서 〈우리의 다짐〉을 선언하며'를 발표했다.

조회장은 서약서 발표를 통해 "벤처기업가들이 사회공헌과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